

제20차 OCLC 국제 연구 도서관장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윤 정 옥*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고희곤 정보자료센터장과 필자는 지난 2002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의 더블린시에 소재한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에서 열린 '제20차 OCLC 국제 연구 도서관장 컨퍼런스 (20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search Library Directors)'에 참가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1983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미국내의 주요 대학 및 연구도서관 관장들과 세계의 주요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관장들이 모여 연구도서관계 및 도서관계 전반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의 현안들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의 하나이다. OCLC의 초청으로만 참가할 수 있는 이 컨퍼런스 (Invitation Only)는 2002년에 스무번째를 맞이하였고, KISTI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컨퍼런스의 주

요한 세션들은 OCLC 캠퍼스라고 불리는 OCLC의 주요 건물들인 스미쓰 빌딩과 킬고어 빌딩에서 진행되었다. 2002년 컨퍼런스는 "Continuing to Weave Libraries into the Web"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덴마크, 영국 등 모두 17개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첫날인 3월 3일 일요일 밤 열린 '만남의 시간'은 전형적인 서양식의 사교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이 간단한 과일, 치즈 등을 곁들여 와인이나 맥주, 소다 등을 마시며 처음 만나는 이들은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 알던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필자는 미국에서 십 여년 살았고 그런 식의 모임을 많이 참석해 보았지만, 아직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혹은 먼저 말을 걸어 오는 낯선 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오륙십대의 고참 도서관장들이라는 중후함이 있는 동시에, 국제적인 도서관 커뮤니티에서 오래 함께 일하고 교류해 온 경험으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필자와 같은 새로운 참석자는 주변적인 관찰자



〈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가 필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자료센터 초청연구원, ynco0120@yahoo.co.kr

의 입장이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하고 다정한 전형적인 할머니 사서의 인상을 주었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의 도서관장인 미즈 몬태번(Ms. Montavon)의 말처럼 이런 곳에 오면 되도록 눈에 안 띄게 구석을 찾아서 있는 이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어와 문화의 배경을 넘어서 도서관쟁이들로서의 동질감에 바탕을 둔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3 월 4일 월요일 오후에 열린 미팅은 “문화 기관들의 경계를 허물기”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디렉터인 로버트 마틴 박사가 발표하였다. 마틴 박사는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박물관, 문서관 등에서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웹 등을 이용하여 최종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기관들 사이에 기능이 중복되게 됨을 지적하였다. 결국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기관들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요구 충족이라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협력은 국가 내의 기관들 뿐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마틴 박사의 발표를 필두로 하여 이 컨퍼런스 기간 내내 한 목소리로 지적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점점 더 ‘투명한 (invisible)’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웹으로 정보(본문, 이미지, 수치 등 그 형태가 무엇이든)를 찾으면서, 그들이 얻는 정보의 소스가 되는 도서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웹상에서 얻지 못 하면 그 같은 정보는 아예 부재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정보 추구 행태가 점

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재정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각종 도서관의 생존을 위한 노력도 보다 새로운 양상을 띄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또한 공통적인 화두가 되고 있었다.

원 탁 토의 시간은 모두 6개의 주제를 다루는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었다: 1. 국제적인 협력관계의 구축, 2. 원거리 교육과 도서관 활동, 3. 정보 추구 행태, 3. 도서관의 콘텐츠와 서비스 마케팅, 4. 보존, 6. 직원. 모두가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들로 보였지만, 월요일에 하나, 그리고 화요일에 하나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매우 아쉬웠다. 필자가 첫 날 택한 주제는 “국제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으로서, 이 세션을 맡은 일리노이주립대학의 출딘 박사는 정년 퇴직이 가까운 여교수로 머리를 매우 짧게 깎은 특이하고 강렬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출딘 박사는 연구 도서관의 정의를 대학 도서관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기능의 도서관들 간, 다양한 국가 및 문화들 간의 정보공유와 교환을 증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잠재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질적 문화간 혹은 국가간 협력을 추진할 때, 일방적인 수여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협력 기관 혹은 국가들의 양측이 동등한 수준과 관심, 호혜적인 목적과 민감성을 갖고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출딘 박사는 모트슨 센터에서 국제 도서관인 연수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세계 각국의 사서 및 도서관 관리자들이 미국에서 3개월에서 일년간 머물면서 미국의 도서관 실무와 이론을 관찰 및 습득하고, 주요한 도서관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협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는 자비로 참가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미국의 도서관 현장을 돌아보고, 여러 나라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월 5일 화요일, 로컨 텔시 (OCLC Research Institute)의 “공간에서의 장소: 공유 네트워크 공간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프리젠테이션은 물리적인 공간의 도서관 (Library in Places)이 급속히 변화하는 흐름 속의 존재로서 기능과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 (Library in the Space of Flows)을 도서관 협력 양상의 변천에 비추어 조망하였다. 1970년대의 공동 편목, 1980년대의 자원 공유, 1990년대의 문헌 발굴과 전송, 2000년대의 공동 참고 서비스, 아카이빙, 디지털화, 학술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요한 패러다임을 살펴 보면서, 도서관의 제반 기능들이 기관들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됨을 강조하였다.

뉴 욕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인 캐런 스완 박사는 원탁 토의의 “정보 추구 행태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세션에서 대학의 정보 이용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웹 상에서 어떻게 정보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관찰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보 이용자들의 웹 검색 시에 비디오로 그들의 검색 화면과 태도를 녹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소리내어 생각하기 (think out loud)’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한 연구 결과는 매체의 다양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 이용자들의 수요와 행태가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가 감소하고 정보 추구 행태도 현

저히 변화해 가고 있다는 추세를 지적하였고, 채널로서의 인터넷이 그 속의 정보자원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가리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러나 스완 박사의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였다. 마치 웹의 등장에 따라 시도된 이 연구가 ‘해 아래 새로운 연구의 영역’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접 학문간의 성과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 리조나 주립대학의 ‘Digital Library Initiatives and Special Libraries’ 팀 리더인 캐런 윌리엄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토의”, BioMed Central Group의 발행인인 켈 벨터롭의 발표는 각각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학술지의 고가화 및 상업화 추세, 연구의 종료에서부터 학술지에 발표되기까지의 논문 간행의 지연 등에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전자 출판, 정보자원 공유 등의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대학 및 연구도서관은 가장 큰 학술지의 이용자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학술지,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들의 급격한 구독료 상승으로 인하여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정된 학술지 구입 예산을 지닌 도서관에서는 고가화된 자료의 구독을 중단하게 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더욱이, 학술지 콘텐츠의 생산자인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논문의 제출로부터 심사(peer review)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최신 학술정보의 배포가 지연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학술 정보의 유통과 접근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출판사가 아닌 대학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저널의 발행과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월 6일에는 “Building the Global Digital Library : Access, Transform, Create, Integrate”이라는 워크숍이 열렸다. 모두 60명이 참가하여, 하루 종일 계속된 이 워크숍은 OCLC Institute의 Executive director인 에릭 줄의 주제발표에 이어, “디지털 컬렉션에서 보존 메타데이터의 역할”, “분산된 자원에 대한 접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디지털 도서관 발전”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접근, 변환, 창안 및 통합의 네 가지 주제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의한 후, 각 소그룹의 토의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하이오 대학의 “지식은행(Knowledge Bank)”의 개념, 오하이오주의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인 OhioLink의 성공사례 등에 대한 소개는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정보자료의 디지털화와 표준화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매우 활발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월 7일에는 특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온 23명이 ‘Asian Pacific Meeting : Sharing Session’에 참석하였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 미팅에서 8개국의 도서관 대표들이 자국의 도서관 자동화와 네트워크, 협력 활동 및 각 기관의 OCLC와의 협력 현황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는 필자를 포함하여, 대만의 국립정치대학교 도서관장 린첵황 박사, 호주의 Western Australia 대학 도서관장 존 아필드, 뉴질랜드의 University of New Zealand, Waikoto 도서관장 수 파로,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도서관 부관장 세토 박사, 중국

ISTIC의 국립공학도서관장 셴유란, 인도의 INFLIBNET 디렉터인 무르띠 박사, University of Hongkong 도서관장인 퍼거슨 박사 등이었다. 각 발표자들은 자국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각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및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및 네트워크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re)의 설립 이래로 지난 사십여년 동안 국가의 과학기술 정보센터로서 수행해온 정보자료의 수집과 가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보급, 원문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표를 한 사람은 무르띠 박사로서 인도의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비전을 갖고 있었고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리더쉽의 소유자였다. 중국의 셴유란은 필자와 제일 가까운 연배로서 공학도서관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다감한 여장부였고, 컨퍼런스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가까워졌다. 필자가 한동안 관심을 가졌던 중국어를 진작 더 열심히 공부했다더라면, 중국어로 대화가 가능했었겠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다만 정치대학의 린 박사는 아주 젊어보였지만, 대학 다니는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활달한 이었다. 이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온 도서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나라와 배경은 달라도 서로 통하는 그런 느낌들이 ‘도서관장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이 아태지역의 참석자들에게서 관찰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도서관장은 전문 도서관인의 자리가 아니라 비전문 분야인 대학교수들의 보직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것처럼, 일본과 태국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학도서관장들의 대부분이 사서 출신이고,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어서 서구적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대학의 도서관장은 도서관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지닌 사서 출신의 인물들이 맡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도서관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비전의 면에서 전적으로 '내부인'의 시각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아태지역의 미팅을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게 되었고, 대부분 열대여섯 시간에서부터 만 하루 정도까지 소요되는 귀국길에 올랐다.

이 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국제 도서관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가 있었던 한편으로, 여러 나라의 도서관장들과 소그룹 토론과 발표시간을 통하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전, 이용자들의 정보 추구 행태의 새로운 특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도서관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발전 현황에 대한 정보의 교환 등은 매우 유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하루 종일 함께 미팅을 갖게 되었던 아태 지역의 도서관장들과는 더욱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OCLC 및 각종 국

제 학·협회, 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협력이 대부분 구미지역 국가들의 선제권으로 주도되어, 아태 지역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산업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현안과 관심사항(예를 들어, 환율, 자원 공유, CJK 자료의 처리, 표준화, 자료교환 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도서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KISTI는 이번 미팅에서 KISTI의 비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현황, 국내의 도서관들과의 협력, 정보 네트워크의 발전상황 등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KISTI의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OCLC가 사업을 확장하고 멤버쉽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매년 컨퍼런스에 각국의 기관들을 초청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전의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다른 기관에서 참석하였을 것이고, 내년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누군가가 참석하여 한국을, 그리고 자신의 소속 기관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기관, 한 기관이 조금씩 연결해 가는 다른 나라 도서관인들과의 네트워크가 커감으로써 한국의 도서관계의 위상도 성장하고, 국제 도서관계의 다양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젠가는 선도적인 역할 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본다.